

ESMOD SEOUL

information

ECOLE SUPERIEURE
DES ARTS ET TECHNIQUES
DE LA MODE
DEPUIS 1841



30TH
ANNIVERSARY
1989-2019
ESMODSEOUL

에스모드 서울 개교 30주년
Special Edition

03 ESMOD SEOUL PROMOTION 2019
& ESMOD INTERNATIONAL SHOW
16 ESMODIANS
18 ESMOD SEOUL NEWS

vol.54

CONTENTS

- 03** > 30th ANNIVERSARY PROMOTION 2019
30주년 기념 졸업작품발표회
- 04** > FOUNDER
설립자
- 06** > ESMOD INTERNATIONAL SHOW 2019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쇼
- 08** > ESMOD INTERNATIONAL MEETING 2019
2019 에스모드 국제회의
- 10** > PROMOTION 2019
30주년 기념 졸업작품 여성복 컬렉션
- 12** > PROMOTION 2019
30주년 기념 졸업작품 남성복 컬렉션
- 14** > PROMOTION 2019
30주년 기념 졸업작품 아동복 컬렉션
- 15** > PROMOTION 2019
30주년 기념 졸업작품 심사위원
- 16** > ESMODIANS
에스모드 서울 재학생, 졸업생
- 18** > ESMOD SEOUL NEWS
에스모드 서울 소식



* 위 표지 사진은 에스모드 서울 29기 조재형 졸업생의 졸업작품 컬렉션(모델 이은석)입니다.

ESMOD SEOUL
에스모드서울 패션디자인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6 우) 06028
TEL. (02) 511-7471~3
발행 편집인 / 박윤정, 고은경 인쇄 / 오베이션
창간 / 1992년 5월 7일 등록번호 / 서울 사-1576
연 2회간 / 비매품 54호 발행 / 2020년 3월 20일

ESMOD SEOUL PROMOTION 2019 ESMOD INTERNATIONAL SHOW

에스모드 서울 개교 30주년 기념 졸업작품발표회 &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쇼



개교 30주년 기념, 제29회 졸업작품발표회 및 인터내셔널 쇼

지난해 12월 5일, 에스모드 서울 개교 30주년 기념 <제29회 졸업작품발표회 및 인터내셔널 쇼>가 섬유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외 패션계 인사와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본 행사는 30여 년 전 에스모드 서울을 설립한 박윤정 이사장의 공적에 감사를 표하는 오마주 영상으로 시작해 관람객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 날 3시와 7시 쇼 두 차례에 걸쳐, 에스모드 서울 패션디자인 과정을 익힌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전공별 총 46명의 예비졸업생들이 선보인 작품 155점과 10개국 15개 글로벌 에스모드 분교의 우수 졸업작품 145점이 소개됐다.

특히, 저녁 7시 쇼에는 프랑스 에스모드 파리, 리옹, 루베를 비롯한 노르웨이, 레바논, 말레이시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튀니지 등 에스모드 분교의 교수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에스모드 서울 개교 30주년 행사를 축하했다.

패션계 VIP 인사들이 참석한 7시 쇼가 끝난 후 수상자가 발표됐다. 패션업계 실무자 및 패션계 대표인사들로 구성된 50여명의 외부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심사위원 대상은 남성복 전공 김주엽 학생에게 수여됐고,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서울-파리 왕복 항공권이 부상으로 증정됐다.

김주엽 학생은 우리나라 전설 속 동물인 '현무'에서 영감을 얻어 갑각류와 곤충류에서 보여주는 무늬를 재해석해 새로운 패턴을 개발했으며, 돌연변이 생명체의 형태감을 살려 실루엣에 접목, 표현함으로써 크리에이티브한 재킷, 셔츠, 바지 아이템을 선보였다.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회장인 니노 사토루(Nino Satoru)는 "이 자리는 1989년 설립된 에스모드 서울의 개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졸업하면 바로 디자인

으로 일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겠다는 꿈으로 시작한 에스모드 서울의 설립자 박윤정 이사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박윤정 이사장에게 30주년 공로패를 증정했다.

<2019년 제29회 에스모드 서울 졸업작품발표회 수상자>

- ▶ 심사위원 대상: 김주엽(남성복)
- ▶ 올마크상: 조재형(남성복)
- ▶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상: 김준형(여성복)
- ▶ 주한프랑스대사상: 왕만루(여성복)
- ▶ 금바늘상: 박영원(여성복)
- ▶ WGSN상: 안소현(여성복)
- ▶ 탐텐상: 김승욱(남성복)
- ▶ YKK한국상: 이경혁(남성복)
- ▶ 동동최우수상: 김의연(아동복)
- ▶ 스페셜스타일상: 로라 로사 부이스(남성복)
- ▶ 동등우수상: 정새롬(아동복)
- ▶ 한국패션디자인연합회장상: 주효재(여성복)
- ▶ 프로모탈상: 정윤정(여성복), 배수빈(남성복)
- ▶ 부라더상: 조기은(여성복)
- ▶ 임소희(아동복)



박윤정 이사장 30주년 공로패 증정 원복부터 고은경 대표이사, 박윤정 이사장, 니노 사토루 회장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와 왕만루 주한프랑스대사상 수상 학생

2020년 SUMMER CLASS 안내

에스모드 서울 SUMMER CLASS는 에스모드 3년 정규 과정 이외에 여름방학에만 진행되는 에스모드 서울 유일한 단기 과정으로, 프랑스 패션디자인 교육인 에스모드 커리큘럼을 가장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교수진의 개별지도로 이루어지는 본 특강은 패션 디자인 분야로의 진로모색, 깊이 있는 심화학습, 실무교육을 통한 직업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에스모드 스틸리즘 A	7/27 ~ 8/7	월 ~ 금 (2주, 40시간)	09:00 ~ 13:00
에스모드 모델리즘 A	7/27 ~ 8/7	월 ~ 금 (2주, 40시간)	14:00 ~ 18:00
에스모드 스틸리즘 B	7/27 ~ 8/7	월 ~ 금 (2주, 40시간)	14:00 ~ 18:00
에스모드 모델리즘 B	7/27 ~ 8/7	월 ~ 금 (2주, 40시간)	09:00 ~ 13:00

* 모든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 대상**
에스모드 스틸리즘, 모델리즘
· 패션 디자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자
· 에스모드 패션디자인/패턴디자인 커리큘럼을 경험해보고 싶은 자
· 에스모드 서울 편입학을 원하는 자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과정 수강생에 한함)
- 특전**
SUMMER CLASS 수료증 수여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수강 시 에스모드 서울 1학년 2학기 편입시험 응시자격 부여
- 합인혜택**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수강 시 10% 할인
- 문의**
02.511.7471~3 (내선 103)
admission@esmod.co.kr
www.esmod.co.kr
카카오톡 채널 : 에스모드서울
- 접수 및 등록절차**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www.esmod.co.kr)에서 선착순 접수
- 모집인원**
각 과정당 30명 내외
* 등록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입학 안내

에스모드 서울은 패션디자인(스틸리즘)과 패턴디자인(모델리즘)을 병행하여 교육하는 3년제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으로 실무교육과 함께 학위 취득도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학년 때는 여성복 위주의 패션디자인 기초 과정을, 3학년이 되면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런체리 전공을 교육합니다. 입학은 원하는 분은 6월부터 2월까지 5차례 진행되는 오픈캠퍼스 중 한 번 참석하신 후 전형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오픈캠퍼스는 교과 과정 설명 및 학년별 작품집 전시, 재학생과 졸업생의 체험담 발표, 교실 탐방 및 진로체험수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진로체험수업은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이너의 세계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오픈캠퍼스 일시

- 1차: 2020년 6월 26일 (금)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2차: 2020년 11월 20일 (금)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3차: 2020년 12월 11일 (금)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4차: 2021년 1월 26일 (화)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5차: 2021년 2월 9일 (화)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 1, 2, 3, 4, 5차 중 1회만 참석해도 됨
- * 별도 예약/신청 없이 참석가능

진로체험수업

패션 디자인 분야로의 적응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간
패션 디자인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 (전공, 연령, 성별 상관없음)
에스모드 서울 현직 교수진이 진행
매 회 선착순 25명 (예약 필수, 홈페이지 참조)
문의 : Tel. (02)511-7471 (내선 103)

■ 에스모드 서울 박윤정 이사장 · 고은경 대표

30주년 에스모드 서울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디자이너 키운다”



제자들이 만든 옷을 사 입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박윤정 이사장은 “최선을 다한다고만 하지 말고 최고가 되라!”고 동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에스모드 서울이 나의 자서전이고 제자들이 아들, 딸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에스모드 서울의 박윤정 이사장.

“졸업하면 바로 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패션교육 기관을 세워보자!”는 신념을 갖고 30년 전 척박한 대한민국에 ‘에스모드 서울’을 개교했다.

올해 29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에스모드 서울의 졸업패션쇼에는 전세계 15개 분교에서 48명의 교수진이 참석했다. 또한 국내 패션브랜드사와 디자이너,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스모드 서울 30주년에 대한 축하와 졸업패션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 동안 배출한 제자들만 2300여명. 현재 유명 패션브랜드사에는 대부분 에스모드 출신들이 자리 잡고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모교와 동문에 대한 자부심 또한 크다.

지금의 에스모드 서울은 패션의 중추국인 프랑스를 비롯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프로젝트 파트너로 손을 내밀 만큼 위상이 높다.

지난 30년, 평생을 제자양성을 위한 외길을 걸어 온 박윤정 이사장과 향후 30년, 또 다른 도약을 주도할 고은경 신임 대표를 함께 만났다.

/이영희 기자 yhleee@ktnews.com

/사진=정정숙 기자 jjs@ktnews.com

패션디자이너로 활약하며 제대로 된 패션학교를 만들겠다는 박윤정 이사장의 꿈은 ‘에스모드 서울’ 설립으로 실현됐다. “30여년의 시간이 어제인 듯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박 이사장은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자 최선을 다 한 세월이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다”는 소감과 함께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다짐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열정의 강도를 느끼게 했다.

지난 15년간 곁을 지켜 온 고은경 대표 역시 이 같은 열정에 “꿈없이 꿈꾸고 패션을 사랑하는 열정에 남다른 놀라움 배우고 있다”며 경외심을 나타냈다.

박윤정 이사장의 제일 행복한 순간은 “제자들이 만든 옷을 사 입을 때”라고 한다. 그 만큼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언제나 제자들의 행보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기 졸업생인 정옥준(상복물산 패션 부문 ‘준지’ 상무) 동문이 자랑스럽다. 또 현재 커스텀멜로우 크리에이티브 니케터인 손현오, 옛코너 실장인 최은진 부부는 8기 졸업생으로 패션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내 생일을 축하해 주러 쌍둥이들까지 데리고 학교에 왔었다”며 제자들 자랑



박윤정 이사장 “이제 시작이다! 나의 열정은 현재 진행형”



에스모드 서울 입사 15년, 박윤정 이사장의 열정에 매 순간 놀란다는 고은경 대표. 최근 취임식을 갖고 향후 30년의 에스모드 서울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

에 여념이 없다.

박이사장은 “최선을 다한다고만 하지 말고 최선을 통해 최고가 되길 바란다.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에스모드 서울의 미래상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리드하는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학교”라고 명쾌한 정의를 내렸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고은경 대표는 “에스모드 서울에 온 학생들은 패션을 사랑하고 꼭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다.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준으로 몰리는 청년들이 많은 이 시대에 확고한 꿈을 가진 에스모드 학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지 모른다”고 대화를 시작했다. 이처럼 귀한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것이 에스모드 서울의 목표이자 곧 자신의 목표라고 단언했다. 에스모드 서울의 선행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모든 교수와 교직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점은행제가 에스모드 서울의 교육적 특성을 살리면서 이론 부분을 강화해 실력도 쌓고 학위취득도 가능한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경주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박윤정 이사장과 고은경 대표는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고, 졸업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글로벌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기관이라는 설립이념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인다”고 뜻을 함께 했다. 30주년, 서른살은 더욱 왕성한 활동을 예고하는 시기다. 에스모드 서울은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는 컬리큘럼으로 ‘혁신의 균형’을 살려 발전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에스모드 서울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랑콤의 글로벌 파트너로 2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세계적 데님 콘테스트인 이스모도 에스모드 서울을 파트너 스쿨로 선정, 3년째 콜라보

레이션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구찌 디자인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한국 유일인 파트너 스쿨로 선정돼 화제가 됐다. 전 세계 10개국의 국가별 대표 패션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고은경 대표는 “구찌측에 에스모드 서울의 실명자료를 보내겠다고 하니 ‘이미 잘 알고 있으니 필요없다’는 답이 와서 너무나 놀랐으며 세계적 브랜드의 파트너 스쿨로 선정돼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당시의 소감을 밝혔다.

이를 통해 파이널리스트로 뽑힌 다섯명 이 로마에 초청됐으며 10개국 50명의 학생 중 우승자 11명에 에스모드 서울 학생이 선정되는 기쁨도 맛봤다. 이 학생은 내년 4월부터 구찌 본사 디자인실에서 주니어 디자이너로 일하게 됐다. 패션디자이너로서의 교육과 영어, 이탈리아어 교육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고 대표는 “에스모드 서울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이라크, 콜롬비아, 중국,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한국의 수준 높은 패션 감각과 교육을 습득하려는 학구열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에스모드 글로벌 행사가 에스모드 서울에서 열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의가 크다.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13개국 20개 분교는 모두 같은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씩은 모여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서로의 교육결과물을 비교 평가하고 토론하며 업그레이드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패션시장 상황과 학생들의 변화하는 성향까지도 공유한다. 에스모드 서울의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행사는 내년에 는 튀니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은경 대표는 “앞으로의 30년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디자이너 육성기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거듭 다짐했다.

꿈이 있었어요

졸업을 하면 바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겠다는 꿈



에스모드 서울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설립자 박윤정 이사장의 공적에 감사를 표하는 오마주 영상이 <제 29회 졸업작품발표회 및 인터내셔널 쇼>에서 공개됐다.

박윤정 이사장은 ‘졸업하면 바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1989년 에스모드 서울을 설립했다. ‘어느 패션기업에 가도,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이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난 30년간 에스모드 서울의 실무 중심 교육을 받은 2,300명의 졸업생들은 국내외 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패션계를 이끌고 있다.



우리 제자들 옷 사입을 때 그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자들의 옷을 사입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박윤정 이사장. 영상은 에스모드 서울을 설립하여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게 해준 박윤정 이사장에 대한 감사인사로 마무리됐고, 이는 많은 관람객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에스모드 졸업발표회는 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화된 인재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GUANGZHOU



PARIS



TUNIS



BEIRUT



LYON



TOKYO



DUBAI



KUALA LUMPUR



JAKARTA



BEIJING



ROUBAIX



OSLO



SOUSSE



SEOUL



DAMASCUS

2019 ESMOD INTERNATIONAL SHOW

DAY 1 2019 MEETING in SEOUL OPENING



매년 전세계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본교 중 한 곳에서 열리는 에스모드 국제회의가 2019년 12월 2일에서 6일까지 개교 30주년을 맞은 에스모드 서울에서 열렸다. 국제회의에는 전세계 11개국, 16개 본교로부터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첫 날, 세계 최초의 패션스쿨인 에스모드의 178년 역사와 유산, 가치를 함께 나누었으며 패션디자인에서 시작해서 패션비즈니스까지 확대되고 있는 에스모드의 교육전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SMOD International Meeting 2019 @ Seoul

DAY 2 SHOWCASE OF STUDENTS' WORKS



셋째 날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용하는 비영리 문화단체 '아름지기'의 장영석 국장을 초빙하여 한국문화 유산에 대한 특별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각 본교에서 지난 1년간 진행한 콘테스트, 워크숍, 프로젝트와 함께 각국의 패션 산업에 대한 소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이기도 한 '지속가능성'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시켜왔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교환도 있었다.



DAY 3 EVENTS, PROJECTS, ACTIVITIES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이 모델로 각 본교 학생들의 작품을 입고 진행된 전체 본교 학생 작품 평가일 전 세계 에스모드 본교는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있어 고된 완성도를 보이지만, 본교별 작품은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녹아 있어 매우 다양하다.



DAY 4 ESMOD INTERNATIONAL SHOW



넷째 날은 에스모드 서울 개교 30주년 기념 <제29회 졸업작품발표회 및 인터내셔널 쇼>가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개최됐다. 에스모드서울 예비 졸업생 총 460명의 작품 155점이 선보여졌고, 각 본교의 우수 졸업작품 145점이 소개됐다. 특히, 내전 중인 관계로 10년 만에 에스모드 국제회에 참가한 시리아의 에스모드 다마스쿠스 대표와 교수들은 자국 학생들 작품의 캐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혀 모두의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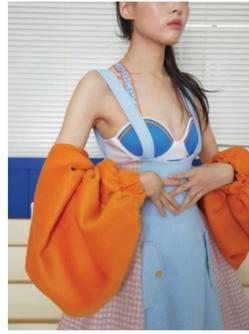
DAY 5 CLOSING, NEXT MEETING



마지막 다섯째 날에는 에스모드 파리 본교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마케팅, 홍보 전략에 대한 논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패션스쿨 에스모드는 매해 열리는 국제회의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0년 국제회의는 개교 31주년을 맞은 에스모드 튀니지에서 열리며, 2021년에는 에스모드 파리 개교 18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지우



이연이

권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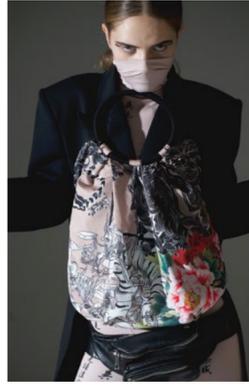
리진주



김혜민



김민영



이연이



이정아

30TH ANNIVERSARY

에스모드 서울 개교 30주년 기념 PROMOTION 2019 FEMMIE



양혜리나 기범

김민영



김지우



김지우



WGSN의 인스퍼



김민영

이연이



김민영



한복패션디자이너연합회전차 주호주



김지우



에스모드서울내셔널 김민영



동동 우수상 정세물



유니콘 최우수상 김민희

김민희



꽃미민



송이음



꽃미민

30TH ANNIVERSARY
에스모드 서울 개교 30주년 기념
PROMOTION 2019
ENFANT



박지현



김민희



프로젝트 유니콘 우수상 김민희

제29회 졸업작품 심사/위/원/



- | | | | | | |
|-----|----------------------|-----|-------------------------|------------------|--------------------|
| 고태용 | BEYOND CLOSET CD | 서유미 | Benebene 실장 | 정고은 | GOEN J 대표 |
| 권재현 | 신성통상 OLZEN 상무 | 성혜림 | 페리미츠 팀장 | 정상은 | F&F Discovery 실장 |
| 김남규 | MUSINSA MD 팀장 | 손형오 | 코오롱 customellow CD | 정석명 | 동동장학재단 이사장 |
| 김상운 | 베네통코리아 BENETTON 차장 | 송기호 | 신세계툰보이 STUDIO TOMBOY 팀장 | 정혜영 | 시선인터내셔널 MICHAА 상무 |
| 김성희 | 삼성물산 패션부문 해외사업개발 디렉터 | 오원근 | 아이올리 Penfield 실장 | 조광미 | 꼬마스 이사 |
| 김수련 | 퍼스트어패럴 GUESS KIDS 실장 | 오윤정 | 롯데GFR NICE CLAUP 실장 | 차명숙 | 이현어패럴 상무 |
| 김영범 | 신원 SIEG 팀장 | 이강문 | 한섬 FOURM 팀장 | 차인선 | 서울문화사 GRAZIA 편집장 |
| 김재현 | AIMONS 대표 | 이건오 | MUSINSA STANDARD 실장 | 최은진 | LF at.comer 실장 |
| 김지희 | 신성통상 TOPTEN 상무 | 이재민 | 서양네트웍스 링크뮤 팀장 | 최정희 | Andersson Bell 대표 |
| 김현화 | 서양네트웍스 정보기획실 이사 | 이창욱 | WGSN 한국 지사장 | 최종규 | thisisneverthat 대표 |
| 류제혁 | LF 질스튜어트 뉴욕 실장 | 이현원 | 더 올마크 컴퍼니 한국 대표 | 표영주 | 대현 정보실 실장 |
| 문유선 | 에이션패션 POLHAM 상무 | 이화영 | 현대백화점 여성복MD 차장 | 홍은주 | 한국패션디자이너 연합회장 |
| 박수민 | 에이션패션 POLHAM KIDS 실장 | 임은경 | 한섬 정보실 실장 | 홍정아 | 힐라코리아 FILA 실장 |
| 박주원 | 유로물산 RENOMA homme 이사 | 장정애 | 코오롱 LUCKY CHOUETTE 실장 | NINO SATORU |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회장 |
| 박춘무 | DÉMOO 대표 | 전은정 | 진서 BOTTICELLI 실장 | OKAHARA MASAHIKO | YKK 한국 영업본부장 |

* 가나다순 / 소속 회사명과 직책은 2019년 11월말 기준

SPONSORSHIP



THE WOOLMARK COMPANY

dong do ng



PROMOSTYL
INTERNATIONAL STYLE AND TREND OFFICE

YKK®

WGSN[^]
BY ASCENTIAL

TOPTEN¹⁰

DAZED



INSTITUT
FRANÇAIS
주한 프랑스문화원

JUNO HAIR
JUNO ACADEMY

부라더미싱

ESMOD
INTERNATIONAL
Fashion Institutes & Universities Group

ESMODSEOUL 장학 재단

미래의 ESMODIAN 후배들에게

남다른 선택, 남다른 열정, 남다른 삶



정규과정 1학년 정주원

저는 미래 진학을 위해 입시미술을 열심히 준비하던 학생이였습니다. 하지만, 입시가 가까워지고 미래로 진학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고 불필요한 수업도 반드시 들어야 하며, 졸업이 다 되도록 본인 전공에 대해 전문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을 차아가며 입시를 준비했던 저에게 대학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인데, 저의 대학생활을 이런 고민들로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생각과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다가 에스모드 서울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션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패션 스케줄을 따라가다 보니 주 단위로 실력이 변하는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만해도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며, 옷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참 잘 배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에스모드를 다니며 제게 일어난 변화를 말씀 드리자면 저를 보는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멋있다"라는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 외모나 스타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의 변화된 생각과 태도 때문입니다. 그 참 많은 게으름뱅이가 작업물을 책임지기 위해 일찍 일어나 등교하고, 더 좋은 원단을 찾기 위

해 동대문을 수시로 들락거리고, 놀자고 불러내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제쳐두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제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열정이 식지 않도록 저희보다 더 부지런히 수업을 준비하시고 시간을 쪼개어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주시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에스모드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프랑스 파리 본교로 교환 학생을 다녀왔습니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캠퍼스 건물부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학교로 향하며 출근 중인 파리지영들을 만나는 것도, 파리 현지 백화점과 여러 편집샵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도, 패션학도로서 파리 거리마다의 느낌들을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교환 학생으로 머무르며 볼 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모드는 제게 다른 선택이었고, 에스모드로 하여금 저는 제 친구들과 다른 열정의 크기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십 과정 김혜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것을 유독 좋아해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며 특성화고 의상예술과에 진학했습니다. 옷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 그 어렵게 양장기능사 자격증도 고등학교 때 취득했습니다. 재학 중 경험한 그래픽 동아리의 영향으로 패션일러스트나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저의 영역을 더 넓히고 싶어 대학은 산업디자인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산업디자인의 영역은 제 생각과 달랐고, 패션디자인을 공부할 때만큼 흥미가 생기지 않아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드는 것이 더 적성에 맞는 것을 깨닫고 취업을 하여 유니폼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손에 익고 경험이 쌓이자 유니폼 디자이너 한정으로 느껴졌고, 더 다양한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 동대문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니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업체의 특성상 카피에 가까운 업무들이 주를 이뤘고, 내가 디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다운 디자이너가 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패션쇼 중,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학하고 싶었던 에스모드를 기억했고 1,2학년 과정을 1년만에 마칠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이 개설된 것을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기로 마음 먹으면 정규과정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오픈캠퍼스에 참석했고,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패션 실무경험 2년을 인정받아 인턴십 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과정은 스�티리즘과 모델리즘으로 꽉 채워진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고,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3월에 처음으로 스커트를 만든 게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재킷을 비롯한 아우터를 만들고 있어 정말 신기하지만 합니다. 25년 인생 중 가장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1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학하고 보니 나이나 진로에 대한 걱정이 무색할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디자인을 해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이신 교수님을 덕분에 저도 계속해서 힘을 얻어 지금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션은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할 부분이 많고, 옷 벌이 제작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옷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디자이너들이 존경스럽고 저도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저의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잘 해내고 싶습니다.

패션을 좋아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에스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고민이 많았던 한 사람으로서 제 경험담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인생 중 가장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1년



1. 인소현 (2017 엠메클래스 스티리즘 · 모델리즘 동시수강 → 2017 1학년 2학기 편입학 → 2020년 2월 졸업)

나의 SUMMER CLASS는? #결단 #도전 #혁신

에스모드 서울의 1학년 1학기 수업을 압축된 과정으로 3주 동안 배우고, 과정 후 1학년 2학기 편입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이거다' 싶었죠. 처음에는 단지 제 적성과 가능성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3주가 지나면서 점점 혁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뻘뻘하고 잠잘 시간도 모자랐던 3주간의 시간이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웠고 더 패션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다짐하게 만든 출발, 바로 에스모드 서울의 썸머클래스가 그 첫 단추였습니다.

2019 졸업작품 발표회 WGSN상 수상



3. 최기늘 (2018 엠메클래스 스티리즘 · 모델리즘 동시수강 → 2019 1학년 신입학 → 2020 2학년 재학중)

나의 SUMMER CLASS는? #물음표 #느낌표 #디딤돌

예술대 졸업 후 보다 전문적인 패션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무 중심 커리큘럼의 에스모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모드에 대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던 계기는 바로 썸머클래스였습니다. 셔츠와 스커트 디자인을 하는 과정, 기본적인 라 아색했지만 하루하루 실례는 마음으로 한 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와 꿈을 지닌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과의 만남, 적극적으로 상담해주시고 조언해주시던 교수님과의 시간도 소중하게 얻은 결과물입니다. 온전히 나의 것을 집중해서 살아 올리기 위한 디딤돌 같은 시간이자 꿈 같은 여름, 썸머클래스 엮기에 가능했습니다.



2019 미니데필레 최우수상 수상

2. 설재진 (2018 엠메클래스 스티리즘 수강 → 2019 1학년 신입학 → 2020 2학년 재학중)

나의 SUMMER CLASS는? #설레임 #꿈 #자신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 생각하다가 접어두었던 패션디자이너에 대한 꿈이 생각났습니다. 실무위주의 커리큘럼과 미술교육을 받지 않아도 디자인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에스모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썸머클래스 스�티리즘 과목을 수강하며 에스모드의 디자인 커리큘럼을 미리 접했습니다. 배울수록 재미있었던 썸머클래스의 3주 기간은 볼처럼 늘 설레고 들뜬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 걱정이 많았고 입학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질까 걱정했지만, 썸머클래스에서 기본기를 배워둔 덕인지 입학 후 1학년 첫 프로젝트인 셔츠 미니데필레에서 '대상' 수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꿈 꿀 수 있게 만들어준 시작은 단연코 썸머클래스였습니다.



2019 미니데필레 대상 수상

4. 조민구 (2019 엠메클래스 스티리즘 · 모델리즘 동시수강 → 2019 1학년 2학기 편입학 → 2020 2학년 재학중)

나의 SUMMER CLASS는? #점 #선 #면

대학에서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지만 패션에 더 흥미가 있어 브랜드를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과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고민 끝에 썸머클래스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썸머클래스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것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패션에 대해 전혀 몰라도, 기본적인 틀이나 옷 만드는 과정을 몰라도, 교수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는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과정을 마치고 편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력이나 역량 차이는 있겠지만 본인이 따라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썸머클래스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패션의 시작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답을 제시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듯이, 저에게 썸머클래스는 패션디자이너라는 꿈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도약의 계기였습니다.

2019 미니데필레 장려상 수상





홍인수 교수, 에스모드 서울 제6대 신입 교장으로 취임

홍인수 스틸리즘 교수가 에스모드 서울 제 6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홍인수 신입 교장은 2월 3일, 에스모드 서울에서 취임식을 갖고 "에스모드 서울이 개교 이래 대한민국 패션 산업계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해 온 만큼, 미래를 주도하는 패션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에스모드 파리를 졸업한 홍인수 신입 교장은 1999년부터 에스모드 서울 스틸리즘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무처장 및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했다.

에스모드 파리 졸업 후에는, 프랑스 파리 「Georges Rech」를 시작으로 「한섬」, 정보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생방울 룩 「TWO:C」, SBS 방송사업부 「SIFAC」, 세우그룹 「CRUCIAN」의 기획실장을 담당했으며,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및 다수의 공연 무대의상을 디자인 하는 등 다양한 패션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패션위크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2020 F/W 파리컬렉션 ATOMAGE JUUN.J(준지)

에스모드 서울 정욱준 동문(27기)이 이끄는 삼성물산의 글로벌 브랜드 「준지(JUUN.J)」가 1월 17일, 프랑스 파리 의과대학(Ecole de Médecine)에서 2020 F/W 컬렉션을 선보였다.

「아토마주(ATOMAGE)」를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컬렉션에서 준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80년대 아이템과 실루엣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족을 활용한 코트, 팬츠, 스커트 및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특히, 1cm가 넘는 어깨패드를 넣은 과감한 스타일의 재킷, 가족이 결합된 신개념 코트 등은 패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이라는 찬사를 얻었다.

컬렉션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가 협업해 총 13명의 모델이 준지 의상에 갤럭시 버즈를 착용하고 무대에서 캣워크를 진행했으며, 글로벌 스포

츠 브랜드 '리복(Reebok)'도 함께해 '펌프 코트(Pump Court) 슈즈'에 준지 특유의 디자인이 더해진 스니커즈 제품도 공개됐다. 준지-리복 협업 '펌프 코트 슈즈'는 블랙과 그레이, 화이트, 그린 등 4가지 컬러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리복 매장에서 올 가을 시즌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지난해 공식 론칭한 준지의 여성복 라인인 오는 3월부터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정욱준 동문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패션대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준지'로 2007년 파리패션위크 데뷔 후 현재까지 성공적인 컬렉션을 이어오고 있는 정욱준 동문은 파리의상조항 정회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한국 디자이너 위상 제고 및 삼성물산 상무이사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 삼성패션디자이너펀드 주인공에 「KIMHEKIM」 김인태 디자이너



삼성물산 패션부문에 설립한 패션 디자이너 후원 프로그램인 삼성패션디자이너펀드(SFDF)의 2020년 주인공으로 「김해김(Kimhekim)」의 김인태 동문(에스모드 서울 2005 입학, 에스모드 파리 2007 졸업)이 선정됐다.

이로써 김인태 동문은 디자인 창작 활동을 위한 후원금 10만 달러(약 1억 2천만원)와 국내외 홍보, 사업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인태 동문이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론칭한 여성복 브랜드 김해김은 한국 감성을 반영한 소재와 실루엣으로 해외

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SFDF 심사에서도 독창성과 완성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김해김은 홍콩 레인크로포드와 미국 포트파이브텐 등 전세계 6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김인태 동문은 에스모드 서울·파리와 스튜디오 베르소에서 패션디자이너를 공부하고 발렌시아가 컬렉션 팀에서 일했으며, 2019 F/W 파리패션위크를 시작으로 2020 F/W 파리패션위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에스모드서울 재학생 3인, '제7회 I-SKOOL DENIM AWARDS' 결선 진출

매년 '데님(Denim)'을 주제로 전 세계 패션스쿨 재학생들이 경합을 벌이는 데님 콘테스트 '제7회 I-SKOOL DENIM AWARDS (아이스쿨데님 어워즈)' 파이널 리스트 17인에 에스모드 서울 재학생 3인이 선정됐다.

주인공은 3학년 여성복 전공 이다영, 최정연 그리고 남성복 전공 양성우 학생이다. 에스모드 서울은 제7회 아이스쿨 데님 어워즈에 참여한 15개의 패션스쿨 중 유일하게 3인의 결선 진출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얻었다.

콘테스트 주제는 'North, East, South, West: connected by one planet'으로, 환경을 고려한 크리에이티브한 데님 작품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편, 파이널 리스트 최종 진출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영국, 중국, 일본 등을 대표하는 유명 패션스쿨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양성우, 이다영, 최정연 학생은 ISKO에서 제공하는 데님 원단으로 작품을 제작해서 올해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최종 결선에 참가하게 될 예정이다.



일본 요지 야마모토 패턴너로 취업한 김재학 동문



에스모드 서울 김재학 동문(26기, 여성복 전공)이 최근 일본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에 패턴너로 취업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요지 야마모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가 설립한 브랜드로, 일본을 대표하는 3대 디자이너 브랜드 중 한 곳이다.

김재학 동문은 2010년 에스모드 서울에 입학, 재학 중에 대한민국패션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7년 여성복 전공으로 졸업했다. 에스모드 서울 졸업 후, 도쿄 문화복지학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한 그는 대학원에서의 2년 동안, 에스모드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학금을 받고 졸업작품 쇼 피날레를

장식하는 기쁨도 맛보았다고 한다. 또한 학기 중 영국 원단직물회사 '도멜(DORMEUIL)'과 콜라보레이션한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곧 있을 졸업식 전에 파리와 런던 행사에 참여하며, 이후에는 요지 야마모토에 출근할 예정이다.

김재학 동문은 후배들, 혹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텨보라며 "무조건 버티라!"라는 말을 전했고, 패턴너로서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뉴욕, 파리에 진출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LF '엣코너', 온라인 중심 브랜드로 리뉴얼

에스모드 서울 8기 최은진 동문이 실장으로, 24기 엄지예 동문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LF(대표 오규식)의 엣코너(a.t.corner)가 온라인 중심 브랜드로 새롭게 리뉴얼했다.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압구정동 LF본사 옆 1층 라움에서 팝업 쇼룸을 개설하고 유통 관계자 및 패션피플들을 초대해 새로운 심볼과 제품을 선보인 엣코너는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이 공존한 아이템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현실적인 고객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엣코너의 이번 시즌 캠페인 해피 클럽(Happy Club)은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 사회에서 스타일리시한 여성들이 모여 즐거운 일상을 함께 하며 뜻밖의 행운을 나누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지속가능한 패션을 적극 실천할 계획의 엣코너는 친환경 소재 및 에코레더를 활용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출시한 '에코컬렉션'으로 착한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최은진 실장(디자인실 수석)은 "새롭게 단장한 엣코너가 고객의 옷장 안에서 '뜻밖의 행운'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면서 "과하지 않으면서 옛지이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성공적인 리부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디자인 의도와 방향을 설명했다.



제29회 졸업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제29회 졸업식이 취소된 가운데, 올해는 46명의 졸업생이 에스모드 서울의 패션디자이너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중 여성복 전공은 19명, 남성복 전공은 19명, 아동복 전공은 8명이다.

3년간의 학업성적, 졸업작품, 교내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 졸업 대상은 남성복 전공 김승욱 학생으로 선정됐다. 김승욱 학생에게는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서울-파리 왕복항공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홍인수 교장은 "졸업식이 취소되어 무엇보다 29기 졸업생들의 아쉬움과 서운함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에스모드 서울의 3년의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이미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감을 갖고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로 사회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디자이너로 에스모드 서울을 빛내줄 것이라 확신한다. 29기 모든 졸업생들을 뜨겁게 응원하며,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경험을 통해 빛나게 성장할 것을 믿는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제29회 졸업식 수상자 명단

- ▶대상: 김승욱
- ▶여성복 최우수상: 안소현
- ▶남성복 최우수상: 박홍근
- ▶아동복 최우수상: 김의연
- ▶공로상: 김민재, 김승욱, 김의연, 김태현, 로라 부이스, 박세리, 박영원, 박홍근, 이보라, 정윤정

DISCOVER PROMOSTYL

INTERNATIONAL TRENDS OFFICE

Since 1966, PROMOSTYL has analyzed and deciphered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and their impact on the world of fashion and design in order to offer you strategic short and long-term forecasting tools.



Our Trend Books are practical tools for anticipating the market, allowing you to stay ahead of your customers' expectations.

TRANSVERSAL REPORTS

- Influences
- Colors

DIGITAL REPORTS

- Textile
- Design
- Beauty

TREND BOOKS

- Timeless Women
- Casual Women
- Men
- Sport
- Kids
- Lingerie

FOUNDATION PACKS

Design/Retail Pack

- Influence Digital Report
- + Colors Trend Books
- + Design Digital Report

Fashion Pack

- Influence Digital Report
- + Colors Trend Book
- + Textile Digital Report

Beauty Pack

- Influence Digital Report
- + Colors Trend Book
- + Beauty Digital Report

WEEKLY TRENDS FOCUS



Every Monday, the PROMOSTYL experts deliver an inspirational moodboard for each textile sector as well as the most inspiring images of the week.



PROMOSTYL offers you 6 tailor-made services to support you during your strategic planning and respond to all stages of your brand development, ranging from Market Intelligence to Communication through to the design and realization of your retail environments.

PROVIDED SERVICES

- Market Intelligence
- Branding
- Creation
- Communication
- Retail / Space Design
- Workshops
- Tailor-Made Trend Book Service

CLIENTS REFERENCES

THEY TRUST US



<https://promostyl.com>
contact@promostyl.com